

빛 늘고 소득 제자리...고단한 중장년

지난해 대출 광주 5000만원·전남 4288만원...4년만에 40% 급증 소득은 짝퍽 올라...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연금 미가입 20%대

광주·전남 중장년층 소득이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지난해 광주 1인당 빛이 5000만원을 돌파하고 전남 부채는 1년 새 220만원이 늘었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담겼다. 이 통계는 매년 11월1일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64세 내국인 대상으로 작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 1인당 금융권 대출잔액 증감률은 광주 5000만원·전남 4288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8%(40만원)·5.4%(220만원) 증가했다. 4년 전인 2016년 대출잔액 증감률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42.9%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3500만원이던 증감률은 4000만원(2017년)→4500만원(2018년)→4960만원(2019년)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5000만원을 돌파했다. 전남은 2016년 3000만원에서 이듬해 350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18년 3376만원으로 줄더니 2019년 4068만원, 지난해 4288만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 중장년층들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 광주 2.0%·전남 1.7% 짝퍽 오르는데 그쳤다. 또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최근 5년 동

안 소득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중장년층 평균 소득은 광주 3559만원·전남 3335만원으로, 전년대비 2.0%(70만원)·1.7%(56만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 3692만원보다 광주는 133만원, 전남은 357만원 뒤졌다. 소득 증가율도 전국 평균 3.9%에 크게 못 미쳤다. 광주 중장년 소득은 3131만원(2016년)→3126만원(2017년)→3276만원(2018년)→3489만원(2019년)→3559만원(지자체) 등으로 4년 새 13.7%(428만원) 올랐다. 전남의 경우 2912만원→3019만원→3120만원→3279만원→3335만원 등으로 4년 동안 14.5%(423만원) 증가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광주·전남 중장년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였다. 특히 전남 무주택자 비중은 58.1%로, 서울(59.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광주 중장년 57만2000명 가운데 무주택자는 55.1%에 해당하는 31만5000명이었다.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비중이 37.2%(21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2건 6.0%(3만5000명), 3

건 1.6%(9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중장년 68만5000명 중 39만8000명(58.1%)이 집이 없었다. 1건 소유가 34.0%(23만3000명), 2건 6.3%(4만3000명), 3건 1.7%(1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중장년층 4명 중 1명은 공적·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노후 보장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장년 가운데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비율은 광주 23.7%(13만5000명)·전남 25.2%(17만2000명)에 달했다. 전국 평균 미가입률은 24.7%(2009만명 중 495만명)이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에 말한다. 퇴직연금은 기업형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연금 등이었다. 한편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은 광주 19만7000가구(59.5%)·전남 18만4000가구(48.1%)로 집계됐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가운데 자녀 나이가 10대인 비중이 광주 40.4%(13만2000명)·전남 40.2%(11만8000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 자녀는 광주 2만6000명·전남 2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광주는 1000명 줄고 전남은 1000명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4분기 해외조달시장 유망기업 광주 1개사·전남 4개사 선정

올해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에 광주 1개사·전남 4개사 등 총 59개사가 선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광주 주식회사 디자인기린과 나주(주)동서산업·사이텍 주식회사, 영광(주)파이프코, 목포(유)유먼테크 등 지역 5개사가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에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내진금속재패널과 혼합유기질비료, 버스정보시스템, 파이프, 테크로드 등을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겨냥하는 거점국가로는 인도,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을 꼽았다. 지-패스 기업은 조달 물품의 품질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4분기 선정된 59개 지-패스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2013년 69개로 출발한 '지-패스' 기업은 이로써 누적 1022개사가 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환경에도 지-패스 기업들이 지난해 6억달러와 비교해 무려 68.5% 증가한 10억2000만달러 수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이들 기업이 경제 도약에 큰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J베어스존 불밝힌 성탄 트리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을 찾은 어린이 방문객들이 성탄 분위기로 새단장한 1층 KJ베어스존을 둘러보고 있다. 이곳에서 누구나 광주은행 캐릭터 '웅아·달아·단지'와 사진을 찍거나 쉬어갈 수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한전KDN 경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30일까지...내년 1월 24일까지 선정

한전KDN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와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며, 에너지·환경 분야 기업을 우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회연대은행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경영개선지원 대상 7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우수기업 'K-스타' 3개사를 뽑아 추가 지원한다.

경영개선지원에 선정된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1500만원 이내,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은 2000만원 이내 무이자 대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발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개척도 돕는다. K-스타 기업은 10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전KDN은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4일 최종 지원기업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 누리집(b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4조2000억 UAE 송전망 건설 수주

한국전력리아랍에미리트(UAE) 4조2000억원 규모 해외 송전망 건설 사업에 낙찰됐다. 한전은 22일 오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국영에너지회사(TAQA)가 발주한 초고압 직류(HVDC) 해저 송전망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해 국제 경쟁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상유전시설에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개 구간 총 연장 259km에 달하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한 후 이를 35년간 운영한다. 사업비는 총 4조 2000억원에 달한다. 발주처와 장기 송전계약 체결로 3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한전은 우수 경쟁사를 제치고 낙찰자에 선정됐다고 자평했다. 한전은 전력회사 일본 큐슈전력과 프랑스 EDF,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해저송전망 설계와 시공은 삼성물산과 벨기에 안데놀이 담당한다. 삼성물산은 중동지역 내 각종 플랜트 건설경험이 풍부하며 안데놀은 해저 케이블 시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는 대우단으로 참여한다. 한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과 민간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입찰 경쟁력을 극대화한 상생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선언에 따라 탄소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에너지 대전환기에 발맞춰 해외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드 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ESG 경영 실천 노사공동선언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난 21일 나주 본부에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주명현 이사장과 심동현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는 ▲에너지 절감 노력 등 환경 친화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노동존중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권·윤리경영 실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직원 의견수렴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ESG 경영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이날 10일에는 ESG 경영위원회를 열어 ESG 경영 중장기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노사선언을 계기로 ESG 경영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 뒤 내년 경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ESG 경영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금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연임

신협중앙회는 김윤식(65) 현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대전 신협중앙회수원에서 전국 신협 이사장 7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차기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처음 직선제로 진행됐으며, 김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전체 투표수 729표 가운데 무효표 4표를 제외한 725표를 얻

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 까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84.48 (+9.45)
↑ 코스닥	1000.13 (+3.53)
↑ 금리(국고채 3년)	1.757 (+0.037)
↓ 환율(USD)	1192.00 (-0.90)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